

《별국》 독서지도안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의 별국이 먹고 싶습니다!
공광규 시인과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 작가_ 공광규 시 | 연수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 어머니. 그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걸음마와 말을 배우며 삶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저편 어딘가에는 어머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과 그리움으로 각인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별국》은 가난 때문에 건더기 없는 국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을 느꼈던 과거의 기억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낸 시 그림책입니다. 단순한 언어로도 삶과 사람에 관한 깊은 생각을 전달하는 공광규 시인은, 가슴 한편에 박힌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시로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연수 화가의 그림이 더 큰 감동과 울림을 더합니다.

온종일 거리를 헤매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어머니. 어스름푸레한 달빛이 차오르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바빠 저녁을 준비하려 하지만 텅 빈 쌀통. 결국 어머니는 오늘도 멀덕국을 끓입니다. 변변한 건더기 하나 없고 멀건 국물만 가득한 ‘멀덕국.’ 그래도 어머니는 낡은 밥상을 펴서 정성스레 국을 올려놓습니다. 건더기 없는 국물에 하늘의 별과 달이 비칩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담담한 이야기가 전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가슴 먹먹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공광규 시인의 어린 시절 기억은, 그리움의 언어로 아련하게 가슴 한편에 남아 있는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그립고 그리운,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따스한 위로와 감동을 얻을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 4. 감상을 나타내요
 -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 4학년 2학기 국어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 4. 이야기 속 세상
-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 5학년 1학기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 10. 주인공이 되어
- 6학년 1학기 국어 1. 비유하는 표현
-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 지도 요점 :

행여 밤길에 넘어질까 불을 밝히고, 찬바람에 목이 시려울까 봐 자신의 목도리를 돌려 주는 어머니. 멀덕국 하나 내놓으면서도 어머니는 손님을 대하듯이 조심조심 정성을 다하셨지요. 국물 속에 떠 있던 별들과 달 덕분에, 딸은 아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배고픔도 추위도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어머니가 항상 멸덕국을 끓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맛있어서
- ② 영양가 있어서
- ③ 가난 때문에
- ④ 요리를 못해서



(2) 충청도 지방의 ‘국물’을 뜻하는 방언으로, 변변한 건더기 하나 없고 멸건 국물만 가득한 국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 ① 뭇국
- ② 멸덕국
- ③ 김치국
- ④ 토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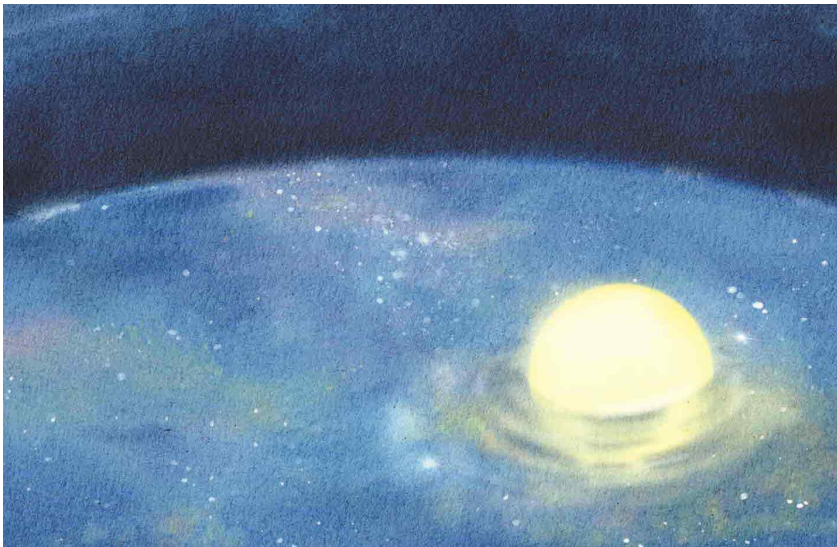
(3)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어머니는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조심조심 정성을 다하셨나요?



- ① 손님
- ② 동생
- ③ 부모님
- ④ 선생님

▶ -----

(4) 어떤 때는 숟가락에 무엇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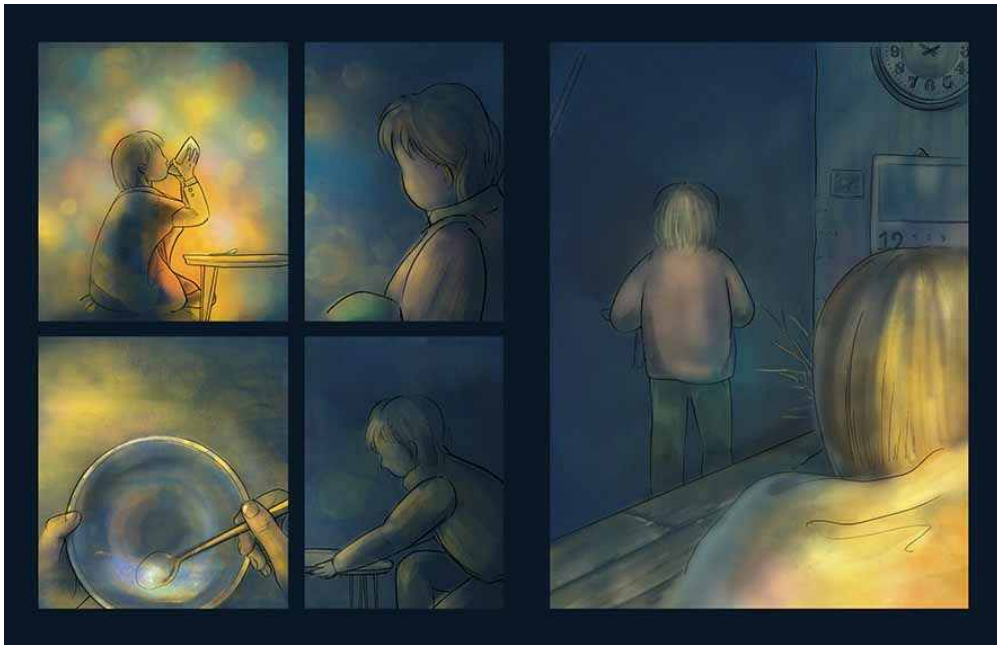


- ① 태양
- ② 바람
- ③ 꽃잎
- ④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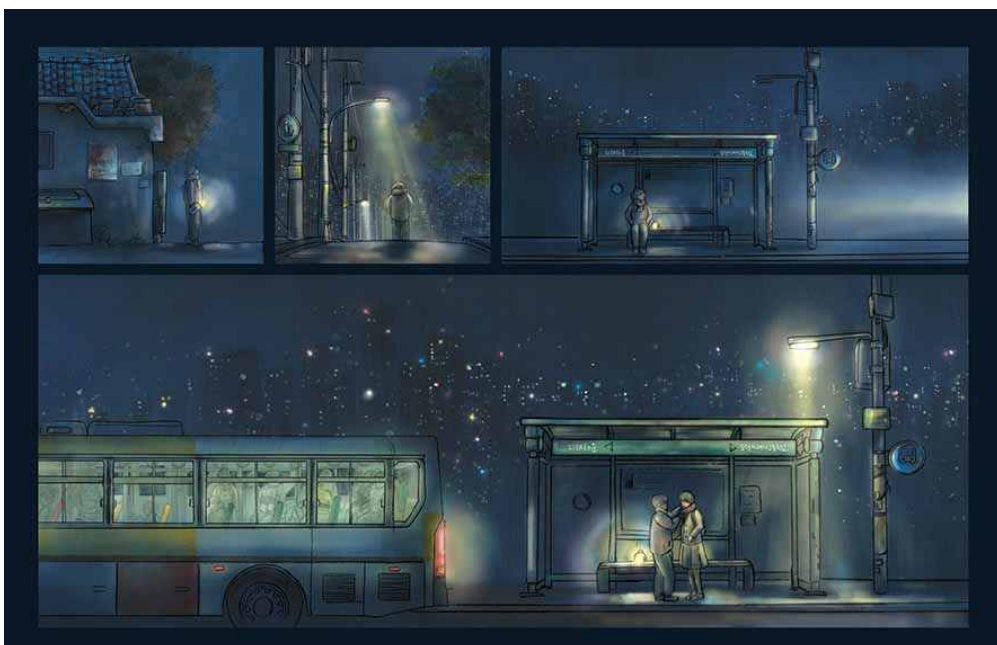
▶ -----

4. 확장활동

(1) 땡그랑땡그랑. 건질 건더기가 없어 숟가락과 사기그릇이 부딪치며 소리를 냅니다. 그 맑은 국그릇 소리에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행여 배고픔이 가시지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늘 자신보다 자식이 우선입니다. 언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별국》을 보고 나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3) 책의 후반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하늘에서도 설 새 없이 눈물이, 별빛 사리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의 인상 깊었던 일이나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가난 때문에 | (2) ② 멀덕국 | (3) ① 손님 | (4) ④ 달

확장활동

- (1) 아팠던 나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요.
운동회 날, 어머니는 “엄마, 엄마” 부르는 입 모양을 보고 나를 향해 단숨에 달려왔어요. 등
- (2) 어머니를 나도 많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아요. 등
- (3) 뜨거운 물에 손을 덴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리던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내 밥 위에 한가득 올려 주세요. 등